미국의 진면모 2

선린이 아니라 침략이다

선린이 아니라 침략이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차　　례

제국의 방위선은 어디까지인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선린》과 《우호》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외우군한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속심을 가리우고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기 위한 허울좋은 궤변이다.

1823년 유럽의 렬강들이 라틴아메리카지역에 저마끔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자 같은 해 12월 2일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즈 먼로우는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먼로우주의》를 선언하였다.

얼핏 보면 유럽렬강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억누르는것은 국제질서수립에 어긋난다는것을 선언한것으로서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후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된 《먼로우주의》의 원칙은 유럽의 그 어떤 렬강이 아메리카대륙에 새로운 식민지를 가지거나 또 중남아메리카지역들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유지하는것이 해당 나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미합중국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결국 《먼로우주의》는 자기 주변은 물론 온 대륙이 다 미국의것이기때문에 누구도 감히 다치지 말라는 강도적인 론리였다.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유럽의 렬강들이 손을 댈세라 서둘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리익을 위하여 그 나라들을 병합 또는 매수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국제질서》나 《미국의 리익》, 《제국의 방위선》의 진상은 바로 이런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어용나팔수들은 먼로우행정부시기를 《훌륭한 감정의 시대》라고 미화분식하고있다.

얼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는 협상탁에서 짜리로씨야의 한 외교관은 《만족을 모르는 팽창은 그들(미국인들)의 숙명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것이란 거의나 없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적중한 표현이 아니였다.

왜냐하면 미국이 욕심내지 않는것이란 거의나 없는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기때문이였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워싱톤에 틀고앉아 미국을 통치하는자들에게 있어서 해외

에로의 진출은 특별한 관심사로 되였다.

무고한 인디안들을 멸종시키는것으로 드디여 대륙횡단국가가 될 야망을 실현한 미국의 욕심은 정녕 끝이 없었다.

북아메리카대륙에서는 더 다른 먹이감을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었던 미국은 대륙지경너머에로 시선을 돌리였다.

사실 미국이 이미전에 대륙지경밖의 먹이감을 탐내지 않은것은 결코 아니였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통치배들은 까리브해지역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지역과 그리고 태평양상의 섬들,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고있었던것이다.

남북전쟁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국제질서》의 간판밑에 세계 제1위의 팽창국가로 되였다.

이 시기 국제체계는 여러 렬강들이 세계적판도에서 적극적인 제국주의침략활동을 벌리면서 각축전을 벌리는 다극화적인 성격을 띠고있었다.

유럽에서는 도이췰란드가 쇠퇴하여가는 대영제국에 도전하여나섰으며 아시아에서는 군국주의일본이, 서반구지역에서는 미국이 해당 지역들에서의 패권을 쥐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었다.

미국에 있어서 변강이란 따로 없었고 그들의 늘어만 가는 《방위선》은 지구상 그 어디에든 한계가 없었다.

그러기에 1893년 위스컨씬종합대학의 한 력사학자는 《변강은 이제 와서는 사라지게 되였으며 그로써 미국의 력사 제1기는 끝났다.》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말한 미국의 력사 제1기란 바로 야망실현 제1기인것이다.

그는 비록 새로운 변강이 바다건너 해외의 다른 곳들에서 발견되여야 한다고 찍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인들의 정열은 그것이 발양되여야 할 보다 광대한 공간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될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팽창주의자들은 미국의 팽창은 미국인들자신뿐아니라 자기들의 제국령역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베풀어준다고, 침략에 앞서 감행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그 나라들의 사회제도들을 미국식으로 개조할수 있게 하여준다고 떠들어댔다.

제국주의적침략행위는 형태적으로 감행될수도 있고 또 무정형적으로도 감행될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형태적감행은 령토의 병합, 식민지화

또는 군사적점령 등의 형식으로 감행되는 침략행위이며 무정형적감행은 경제적지배, 정치적롱간 또는 간섭위협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침략행위를 말한다.

무정형적방식이 보여주는것처럼 제국주의는 반드시 령토의 점령만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미제는 이 두가지 방식을 다 배합한 침략행위를 감행하는것을 자기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의 기본방식으로 삼았으며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있는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조상들의 야망대로 자기들의 나라를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한 대륙횡단국가로 만든 미국인들은 기름진 먹이감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날뛰였다.

미국의 제국주의론자들은 아메리카제국건설을 위한 사상을 요란스럽게 들고나왔는데 그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후날 미국대통령감투까지 뒤집어쓴 시어더 루즈벨트였다.

1899년에 뉴욕주 지사로 있다가 1900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부대통령자리를 차지한 루즈벨트는 1901년 9월에 대통령 맥킨리가 암살되자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이어 1904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선되였다.

그는 대독점체들의 충복으로서 대재벌들의

무제한한 사기, 횡령, 매수, 협잡행위를 극력 조장하고 비호하였으며 세계제패야망을 꿈꾸면서 륙해군을 강화하는데 광분하였을뿐아니라 1902년 탄부들의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는 중재란 간판아래 정부가 로자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파업을 파탄시키는 전례도 만들어냈다.

1904년에는 침략적인 《큰 몽둥이》정책을 내놓았으며 《먼로우주의》의 간판밑에 베네수엘라, 빠나마 등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강화하였다.

루즈벨트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뒤받침한 범죄자였다.

그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권을 예견한 제1차 영일동맹의 성립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일제에 의한 조선침략의 중요한 단계로 된 로일전쟁때에는 일제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지지하였다.

또한 일제의 조선강점을 시인한 범죄적인 《타프트-가쯔라협정》을 조작케 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보호》를 예견한 제2차 영일동맹을 성립시켰다. 《로일강화조약》(1905년 9월)시에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위한 국제적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일제가 날조한 1905년 11월의 《을사5조약》을 쌍수들어 지지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통감정치》를 지지하였으며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모자로서 온갖 죄행을 다 저질렀다.

루즈벨트를 비롯한 미국의 반동지배층이 해외에로의 침략을 강하게 주장한것은 저들이 처한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려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날로 강화되는 로동운동과 인디안들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항의운동들은 미국의 반동지배층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저들의 본성적요구로부터 또 날로 심각해지는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미국은 북아메리카지역을 벗어나 바다건너편을 넘겨다보기 시작한것이였다.

당시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대대적인 해외침략실현에서 가장 필수적인것이 바로 해군력의 강화라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해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앞장선것은 《신해군제창론》의 주요인물인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미해군제독이였다.

그는 미국의 복리증진에서 해외시장은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며 따라서 국가는 자기의 선박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효률적인 해군을 보유하여야하며 또 해군은 자기의 기지들을 구축하기 위한

식민지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한은 자기의 이러한 날강도적인 주장을 제창한 도서에서 《…이제 와서 미국인들은 바깥세계에 눈초리를 돌려야 한다. 국가의 늘어나는 생산량은 바로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라고 하였다.

1883년 미국회는 첫 철갑함선을 건조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자기들의 상선들을 보호하고 착취하고 략탈할 새로운 시장들을 찾아줄 함선들의 출현을 고대하고있던 미국의 대독점자본가들은 미국의 신해군의 출현에 환성을 질렀다.

그리하여 미해군은 1880년대에 풍력으로부터 증기기관으로, 목조로부터 강철함선으로 급속히 이행하였으며 《메인》호,《오레곤》호,《보스톤》호 등과 같은 함선들을 장비한 해군을 가짐으로써 미국은 일약 해상강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해군무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히 강해진 리유는 바로 해외팽창열에 있었다.

호시탐탐 물어제낄 먹이감만을 찾아 령지를 넓혀온 야수들은 마침내 온 세계를 제패할 강철이발까지 가지고 제국의 국경과 방위선을 끝없이 넓히기 위하여 날뛰였다.

악의 본산 백악관

미국의 수도 워싱톤 펜실바니아거리 남쪽에 있는 대통령관저를 백악관이라고 한다.

백악관은 미국의 초대대통령 죠지 워싱톤의 제의에 의해 건설되였다. 그때 워싱톤은 대통령궁전은 화려하게, 정원은 아늑하게, 거처는 편안하게 할데 대한 세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설계도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아일랜드태생의 건축기사 제임스 호반의 설계가 당선되여 1793년 11월에 착공한 후 8년만에 완공되였다.

1800년 미국대통령 아담즈가 처음으로 이 건물에 들어앉는것으로부터 백악관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제2차 영－미전쟁시기인 1814년에 영국군의 포화에 얻어맞아 불탄것을 그 이듬해에 복구하면서 흰색으로 고쳐 장식하였다.

1901년부터 1909년사이에 집권한 시어더 루즈벨트가 편지에 《와이트 하우스》(흰집)라고 적은 후부터 이 말은 대통령관저의 공식명칭으로 되였다.

백악관은 3층으로 되여있는데 밑층은 현관층이고 그우에는 연회장과 대통령의 사무실들이 있으며 맨 웃층에는 대통령의 살림방들이 있다.

미국최대권력의 소재지라고 할수 있는 백악관의 2층응접실에서는 4년에 한번씩 대통령취임선서식이 진행된다.

취임식이 시작되면 해군복을 입은 악대가 노래를 연주하면서 신임대통령과 부인에게 인사를 보낸다.

호위병 2명이 기발을 들고 서있는데 하나는 대통령기발이고 하나는 미국기발이다.

호화로운 연회장에는 수십명의 귀빈들이 앉을수 있는 큰 식탁이 있고 그 정면벽에는 죤 아담즈가 새로 지은 이곳으로 들어올 때 주문삼아 외운 기도가 글로 씌여져있다.

연회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홀의 붉은색 비단으로 장식된 벽에는 워싱톤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력대대통령들의 사진들이 걸려있다.

오늘 사람들은 미국대통령관저를 《흰집》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백가지 악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백악관》이라고 부른다

살인장군 셔먼과 침략선의 말로

조선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양인이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은 1856년 6월 강원도 통천앞바다에서였다.

풍랑을 만난 미국인 4명이 조선어민들에 의하여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였던것이다.

국적도 이름도 전혀 알수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서양인들을 구원한 조선어민들은 동방례의지국의 인도주의적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청나라에까지 데려다주었다.

청나라에 가서야 조선사람들은 드디여 정체불명의 조난자들인 4명의 서양인이 다름아닌 미국사람이라는것과 대양건너 먼 곳에 미국이라는 미지의 나라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런 일은 그후 1865년 8월 경상도해안에서도 있었다.

아마도 그때 바다에서 구원된 미국사람들이 세상에 《은둔국》이라고 불리워온 조선봉건왕조를 렴탐하려던 침략의 척후병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명의 희롱으로 하여 그 당시 구원을 청하는 미국사람들의 모습은 동정을 자아내는 불쌍한 조난자의 모습이였고 그들이 난생 처음

으로 본 조선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선량하고 사심없는것이였다.

그렇다면 미국정부에서는 마땅히 자기 국민을 구원해주고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준 조선사람들에게 감사장을 보내오든가 하다못해 평화의 사절을 보내여 악수를 청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사람들의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총과 대포를 겨누며 달려들었다.

미국인들이 조선인민들에게 처음으로 국적을 밝힌것은 친선사절단이나 교역대표단도 아닌 침략선 《셔먼》호가 포성을 울리며 기여들 때부터였다.

《셔먼》호로 말하면 원래 1861년에 미국남부군에 소속된 군함으로 건조되여 《프린씨스 로이얼》(제일공주)호라는 이름을 달고 남북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북부군에 나포되여 1863년에 개조된 후 당시 살인, 방화, 략탈로 악명을 떨친 북부군 서부방면군 사령관 셔먼의 작전수행에 적극 참가했던 함선이였다.

증기기관과 돛을 겸비한 《셔먼》호는 길이 60.085m, 너비 8.235m, 높이 9m로서 2개의 보이라와 1개의 굴뚝, 2개의 돛대와 4개의 돛, 1개의 추진기, 4문의 포를 가진 당시로서는 발전된 무장함선이였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미국통치배들은 이 배의 이름을 살인장군인 셔먼의 《공적》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제너럴 셔먼》(셔먼장군)호로 고쳤다.

배의 이름으로 된 셔먼의 정식 이름은 더불유. 티. 셔먼으로서 1840년에 웨스트 포인트륙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남북전쟁 초기 남부군을 반대하는 민병부대를 지휘한 전쟁광이였다. 1863년에 장령으로 승급하였으며 북부군 총사령관이였던 그랜트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다.

남북전쟁이 장기화를 띠게 되자 그랜트는 전쟁의 종결은 오직 남부의 전쟁의지를 철저히 분쇄할 때라야만 이룩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부의 후방에 대한 대규모적인 원정을 진행할것을 셔먼에게 명령하였다.

허술한 남부의 전선을 손쉽게 돌파한 셔먼은 자기의 부대를 애틀란타에로 진격시켰다.

1864년 9월 2일 애틀란타를 점령한 셔먼은 해안선을 따라 곧추 진격하면서 남부의 자원들과 설비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동시에 보급물자는 철저히 현지에 대한 략탈로 충당하였다.

셔먼의 군단은 거의 전부가 개전초기부터 전쟁에 참가해온 로병들로 꾸려졌으며 장교들도 무자비성을 겸비한것으로 인정되여 제발된자들이였다.

원정을 시작하기 전에 군의들은 셔먼의 지시

하에 대렬내에서 약골들과 환자들을 모두 뽑아치웠다.

얼굴들이 검실검실하고 수염이 더부룩한, 하루라도 피맛을 보지 못하고서는 잠에 들지 못하는 이 군단은 살륙의지로 충만되여있었다.

셔먼의 적수로 싸운 남부군의 지휘관 죤스톤은 후날 이렇게 평하였다.《율리우스 씨저시기이래 그처럼 야수적인 군대는 존재해보지 못하였다.》

셔먼의 군대는 죠지아주를 횡단할 때 50~60mile의 폭에 200mile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전진하였는데 이 행군으로 인한 이 지역의 파국상은 이루 다 말할수 없이 혹심한것이였다.

죠지아주의 한 녀성은《밭들은 짓이겨지고 침략자들이 소비할수도 또 가져갈수 없은 까닭에 총으로 쏘아 죽인 말들과 돼지, 소들의 주검들이 주런히 널려져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또 알곡도 생산해낼수 없게 하려는것이였다. 어떤 지역들에서의 기아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달하였다.》라고 회상하였다.

사실상 셔먼군의 야수성은 한번 지나만 가도 모든것을 초토화함으로써 대지를 황량한 페허로 만든다고 전해오던 그 옛날 칭기스한대군의 야만적인 살륙과 강탈을 초월한것이였다.

후날 한 이전의 노예는 살아있는 돼지의 등에

서 칼로 고기를 베여내여 그대로 먹던 셔먼군병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회상하였다.

12월에 싸반나에 당도한 셔먼은 군대의 방향을 돌려 사우스캐롤라이너방향으로 진군하였다. 셔먼의 병사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모든것을 불태워버리고 파괴하였다

셔먼은 남부지역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화에 대한 공포심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것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였는데 그자신도 자기들이 파괴한것중의 5분의 4는 군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것들이였다고 고백하였다.

미국지배층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들에게 있던 우수한 무장함선에 이 살인장군의 이름을 달아주었다.

이미전부터 아시아대륙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중요성을 간파한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후 조선에 대한 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국침략자들은 먼저 침략선을 들이밀어 조선봉건왕조와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보려고 하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온 미국의 지배층은 셔먼이 남북전쟁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셔먼》호를 가지고 손쉽게 조선인민을 굴복시킬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있었다.

미국침략자들은 조선침략에 앞서 침략선 《셔먼》호를 미군장교인 프레스톤의 개인무역선으로 위장한 다음 은밀히 화약과 포탄, 수많은 저격무기와 탄약 등을 싣고 90여명의 인원을 태운 후 1865년에 미국을 떠나 다음해 6월(양력 7월)에 중국의 천진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놈들은 순수 상업적목적으로 조선에 가는 평화적인 상선으로 가장하고 중국의 산동지방을 돌아치던 영국목사 토마스를 사환군으로 채용한 다음 그곳을 떠나 1866년 8월 16일(음력 7월 7일) 대동강어구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그 땅은 미국의 남부가 아니였고 그 땅에 사는 인민들도 미국의 남부사람들과 같이 공포감을 가지고 침략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배를 발견한 룡강현의 한 관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묻자 놈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였으며 7월 8일 황주목의 관리들이 놈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추궁하면서 돌아가라고 단호히 경고하자 놈들은 《통상》이요, 《친선》이요 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침략선은 비법적으로 정탐과 수심측량을 하면

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며칠후 평양의 한사정앞(쑥섬과 양각도사이)에까지 이르렀다. 놈들은 평양까지 오는동안 주변에 기여올라 부녀자들을 릉욕하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지어 놈들은 8월 27일(음력 7월 18일) 감시근무수행중인 평양감영의 배를 습격하여 2명의 조선군인을 살해하였으며 중군 리현익을 랍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분격한 평양감영에서는 다음날 즉시 대표를 파견하여 미국강도배들의 비법행위와 야수적만행을 규탄하고 중군을 돌려보내며 즉시 물러갈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파렴치한 침략자들은 담판에서 자기들을 평양성에 들여놓으며 쌀 1 000섬과 많은 량의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으라고 오만하게 행동하였다.

이 강도적인 요구가 단호히 거부당하자 침략자들은 로골적인 략탈과 살인만행을 감행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침략자들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격분한 조선인민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의 호소에 호응하여 투쟁에 일떠선 평양인민들과 군인들은 결사대를 뭇고 침략선을

불태워버리기 위한 화공전을 준비하였다.

9월초(음력 7월말)에 결사대는 《셔먼》호를 향해 일제히 불배를 띄워 내려보냈다.

그리하여 《셔먼》호는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화약고가 폭발하고 침략선은 마침내 대동강에 침몰되였다.

배에 탔던 놈들은 전투과정에 사살되거나 불에 타죽고 나머지는 강으로 뛰여들어 도망치다가 붙들려 처단되였다.

김응우선생님의 화공전술과 평양군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미국의 침략무리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침략선 《셔먼》호의 격침은 조선에서 놈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민의 애국적헌신성과 민족적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시기에 살인장군으로 악명떨친 셔먼의 명성은 이렇듯 수장된 침략선과 함께 동방의 조선땅에서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고야 말았던것이다.

배은망덕한 미국인들

미제침략자들은 《셔먼》호의 침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1868년에 침략선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를 또다시 조선에 침입시켰다.

《쉐난도아》호의 침입목적은 《셔먼》호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며 조선봉건왕조를 굴복시켜 침략적인 조약을 체결하려는것이였다.

미제는 다른 한편 《챠이나》호를 충청도 아산만에 침입시켜 남연군(대원군의 아버지)묘를 도굴하고 남연군의 뼈와 부장품을 강탈하며 그것을 미끼로 조선과 불평등적인 예속조약을 맺을것을 타산하였다.

침략자들은 미리 작성된 면밀한 계획밑에 1868년 3월 18일(음력) 《쉐난도아》호를 황해도 풍천부(오늘의 과일군)앞바다의 허사진 송우포에 침입시켰다.

이 침략선의 침입으로 나라의 정세가 긴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못하고있었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또다시 외적을 쳐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평양

인민들의 앞장에 서시여 진지방어전술로써 적을 격퇴할데 대한 새로운 전법을 내놓으시였고 그 시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인민들은 견고한 진지에 의거하여 미국침략선을 격퇴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4월 7일 이른아침 《쉐난도아》호가 평양침공을 목적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동진포대와 철도사이에 기여들었을 때 의병들과 군인들은 집중포화를 안겨 격퇴해버렸다.

《쉐난도아》호의 평양침입이 파탄되자 적들은 4월 8일 삼화부(오늘의 남포시)앞바다에 있는 비렬도에 기여들어 마을인민들을 강박하여 조선정부에 통첩을 보내였다.

한편 《챠이나》호는 4월 8일 조선을 향하여 중국 상해를 출발하여 4월 16일에 충청도 아산만에 기여들었고 18일에는 덕산군 가야동에 침입하여 남연군묘를 도굴하는 만행을 감행하던중 주변의 인민들과 군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22일 대원군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놈들은 그에 대한 조선봉건왕조의 반응이 전혀 없게 되자 25일에는 영종도를 불의에 습격하여 략탈만행을 감행하다가 영종도수비병들의 반격을 받고 다음

날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챠이나》호의 패배는 평양침공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던 《쉐난도아》호의 마지막희망을 꺾어버렸다. 《챠이나》호가 쫓겨가던 4월 26일에 《쉐난도아》호도 대동강하구에서 쫓겨나고말았다.

모든 침략행위들이 실패하게 되자 미제침략자들은 1871년 5월 조선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국본토에 있던 4척의 군함을 아시아분함대에 배속시키면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온 미국통치배들은 미국아시아분함대 사령관 로져스가 지휘하는 5척의 군함과 80문의 포, 1 230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함대를 한강하구의 물치도부근에 침입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등급이 낮고 전권위임장이 없다는 생트집을 걸어 그와의 담판을 거절하는 등 오만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인 손돌목의 조선군포대앞에 기여들어 각종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공성진포대와 덕진포대의 조선군사들은 적함선들에 집중포화를 퍼부어 적의 주력함 《모노카시》호를 파손시키는 등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손돌목전투에서 당한 저들의

패배와 조선봉건정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벌리였다. 적들은 강화해협을 제압할 목적밑에 강화도 남쪽 초지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조선군대의 야간기습을 받고 적들은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황급히 함대로 달아났다.

이른새벽 륙지로 기여오른 침략군의 주력부대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광성진수비병 70여명은 진무중군 리재현의 지휘밑에 적의 집중포화력과 수적으로도 근 10배나 우세한 적지상군의 공격앞에서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적을 맞받아 결사적으로 싸워 미국군함 2척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고 지상부대에 섬멸적타격을 안기였다.

광성진수비병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에 대하여 이 작전에 참가하였던 미국인들자신도 조선군대는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했다. 그들은 아군을 돌로 내려깠다. 무기가 없는 경우 그들은 침입자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손으로 흙을 뿌렸다. 그들은 한치한치의 땅을 가지고 싸웠으며 오로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라고 하였으며 무력침공의 직접적인 조직자였던 중국주재 미국공사 로우도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조선사람들

은 결사적으로 싸울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의 용감성은 일찌기 볼수 없었던것으로 세계 어느 민족도 조선사람들의 용감성을 따를수 없을것이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조선봉건왕조는 미국오랑캐놈들과 끝까지 싸울데 대한 명령을 발표하는 동시에 《서양오랑캐들이 침입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것은 나라를 파는것이다. 병인년(1866년)에 이 글을 지었고 신미년(1871년)에 비에 새겨 전국에 세운다. 우리의 천만년 자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노라》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서울 종로거리와 전주의 고을들에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조선의 방방곡곡에 세워졌던 《척화비》, 바로 그것은 배은망덕한 원쑤 미제야말로 인류의 정직한 량심과 의리를 거부하고 도전하는 야수의 무리라는것 그리고 그런 날강도들에 대해서는 오직 견결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만천하에 경고한 력사적증거물이다.

이처럼 미제는 150여년전부터 조선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었지만 단 한번도 저들의 흉계를 이룰수가 없었고 매번 된벼락을 면할수가 없었다.

력사의 고발

조선침략의 《척후병》—언더우드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에서 척후병노릇을 한것은 선교사 언더우드였다.

1885년에 인천에 기여든 언더우드 1세는 최초의 조선파견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받은자로서 미제의 조선침략의 길잡이였다.

1887년에 조선에서 첫 교회당이라고 하는 서울《새문안교회당》을 세운 이자는 이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회전문학교를 세운 후 계속하여 《한국그리스도교회》 초대위원장, 《성서번역위원회》초대회장 등의 직무를 맡아보았다. 이자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날뛰는 한편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실현을 암암리에 도와주었으며 조선봉건왕조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본국에 보고하였다.

한마디로 이자는 선교사의 탈을 쓰고 안개자욱한 제물포(오늘의 인천)에 첫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녀편네와 함께 십자가를 들고 30여년간 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를 퍼뜨리고 나라의 형편과 지형지물을 렴탐하여 미국의 조선침략작전도에 화살표를 그어준 《날뛰는 마귀》였다.

놈은 조선인민의 《방조자》, 《동맹자》로

행세하면서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에게 마수를 뻗쳐 봉건정부의 큼직한 벼슬자리와 경제적리권을 미국에 넘겨주도록 사촉하였다.

언더우드의 공로로 미국인들은 조선봉건정부의 외부고문, 군부고문, 학부고문, 궁내고문 등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철도부설권과 광산개발권 등을 따낼수 있었다.

미국이 조선에 친미《정권》을 조작하려는 기도밑에 비렬한 왕궁습격흉계를 꾸미고 왕궁내부를 잘 아는 언더우드를 길안내자로 내정했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자는 죄많은 생을 마치면서 자기 아들(언더우드 2세)에게 조선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조선을 지배하라는 유언을 남기였다.

언더우드2세는 애비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미정탐기관의 지시를 받아가며 암해책동을 벌리는 과정에 박헌영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을 매수하여 간첩으로 키웠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 미국으로 도망갔던 이자는 해방후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어 미군정장관고문의 감투를 쓰고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 학살하는데 앞장섰다.

언더우드 3세 역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모의한 가장 유력

한 고문으로 악명떨친자이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함흥일대에서 수많은 조선인민을 학살한 살인두목이였다. 그리고 정전담판회의들에서 고문장교, 수석번역관을 하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과 흉계를 꾸미였다.

언더우드의 후예들은 그후에도 남조선에서 대학교수, 목사, 재단단장 등의 탈을 쓰고 미제의 남조선지배와 대조선침략을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처럼 언더우드와 그 후손들은 무려 4대에 걸쳐 조선에서 미제의 조선침략의 척후병으로 숭미사대주의의 류포, 살인과 정탐, 파괴와 모략, 암해책동 등 씻을수 없는 온갖 죄악을 저지른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하와이병합과 빠나마운하의 강탈

해군무력을 강화한 미국의 탐욕스러운 시야에 맨 먼저 들어온것이 바로 태평양상에 자리잡고 있는 하와이였다.

하와이로 말하면 미국의 서부해안으로부터 약 2 000mile 떨어진 태평양상에 위치한 24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는 제도로서 원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지속되여오던 한적한 곳이였다.

미국은 이러한 하와이제도를 오래전부터 탐내왔으나 해군력의 약세로 하여 손을 뻗치지 못하고있었다.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초 하와이에로 진출한 미국상인들은 연고와 향수제조에 중요한 원료로 쓰이는 백단나무를 채벌하여 아시아에 수출하고 있었으며 그후에는 미국포경선들이 쓸어들어와 고래잡이에 열을 올렸다.

1830년대 하와이에 기여든 미국의 선교사들은 하와이원주민들을 그리스도교도들로 개종시키고 동시에 미국화하기 위하여 이 섬들에 수많은 교회와 학교들을 세웠다.

사탕수수와 과일재배를 위하여 하와이에 정착한 모험적인 미국인들과 선교사의 후손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하여 어느

한 비평가가 야유한바와 같이 《그들은 여기에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참 좋은 팔자를 만났다.》고 할 정도로 부자가 되였다.

1890년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비록 인구수에서는 하와이 전체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았으나 하와이 전체 재부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늘어나는 사탕생산의 확대를 위한 로동력확보를 목적으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까지 끌어들이였다.

그리하여 1890년 당시 하와이에서 원주민들은 하와이 전체인구수의 4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처음으로 이민선이 하와이로 떠나간것도 바로 이때에 있은 일이다.

하와이제도는 무관세로 미국의 시장들에 수출되는 사탕생산을 공간으로 자기들의 경제를 미국의 경제에 종속시키고있던 백인미국인들의 지배를 받는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전변되여갔다.

호시탐탐 하와이를 먹어치울 기회만 엿보고있던 미국은 하와이의 국왕이 통치하는 정권을 전복하고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해줄 새 정권을 수립할것을 기도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1887년 미국음모가들은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며 또 국정결정권을 군주가 아니라 립법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새로운 헌법(일명 《총검헌법》이라고도 한다.)을 인정하도록 국왕에게

강박하고 같은 해 진주만의 항만개발권을 강탈함으로써 하와이인들의 땅과 정치, 경제, 주권에 대한 통제권을 서서히 빼앗아내기 시작하였다.

1891년 컬라커우아국왕이 사망하고 그의 녀동생이던 릴리우어컬라니공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때를 기다리고있던 미국인들은 정권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공제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행동을 개시하였다.

미국함선 《보스톤》호가 하와이제도에 파견되였으며 배에 타고있던 미군무력은 호노룰루의 요충지들을 점령하였다.

2월 1일 미국기발이 호노룰루에 있는 정부청사에 게양되였다.

의기양양해진 놈들은 미국무성에 《하와이의 배는 완전무결하게 익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열매를 따야 할 시기이다.》라는 전문을 보냈다.

하와이에 자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낸 일본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팽창주의자들은 하와이합병안을 국회상원에 긴급제출하였다.

에스빠냐—미국전쟁이 발발하자 하와이제도가 가지는 군사전략적의의는 더욱 커지게 되였으며 하와이합병안은 미국회에서 정식 통과되여 하와이는 미국의 령토로 선포되였다.

하와이합병으로 미제는 서반구와 아시아를

련결하는 해상통로의 요충지를 차지할수 있게 되였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아시아에로의 침략의 도약판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20세기에 들어선지 얼마 안되여 빠나마도 미제가 가장 욕심내는 곳으로 되였다.

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평양과 대서양사이의 가장 좁은 부분인 빠나마지협지대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것을 꿈꾸어오고있었다.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가 48㎞인 이 지협일대는 화산분출암으로 이루어진 저지로 되여있었는데 까리브해쪽은 사철푸른 열대숲과 망그로브숲으로 덮여있었고 태평양쪽은 열대산림초원(싸반나)으로 되여있었다.

1869년 미제는 인디아양과 지중해를 련결시켜주었으며 그리하여 대영제국의 위력을 더욱 크게 하여준 수에즈운하의 완공을 시기심에 가득찬 눈길로 바라보면서 빠나마지역을 타고앉아 여기에 두 대양을 련결시키는 침략통로로 될 운하를 건설하게 될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게 되였다.

미국의 호전적인 군부세력은 새로운 운하가 건설되게 되면 《메히꼬만은 미국의 호수로 되게 될것이다.》라고 뇌까린 철저한 팽창주의자였던 미해군의 함장인 로버트 슈펠트의 주장에 완전히 공감하고있었다.

기업집단 역시 두 대양을 련결시키는 통로는 미국경제에 활력을 주고 해외침략을 위한 통로 개척에서 본질적요소로 된다고 보면서 그것을 적극 주장해나섰다.

미국의 정치가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해군장성들은 목소리를 합쳐 그 운하가 어디에 건설되든지간에(니까라과이든, 빠나마이든, 메히꼬이든지간에) 미국은 반드시 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꼴롬비아의 한개 주로 되여있었던 빠나마의 좁은 지협을 가로지른 운하가 건설되자면 세가지 장애물이 극복되여야 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미국이 영국과 공동으로 통제권을 행사할데 대하여 협약한 1850년의 《클레이톤－뷸워협정》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것이였다.

당시 유럽대륙에서 도이췰란드의 도전에 직면하고있던 영국은 미국과의 선린관계를 추구하고있었으며 또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있다는것을 인식하고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시어더 루즈벨트는 《헤이－파운씨포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영국을 옆으로 제껴놓을수 있었다.

두번째 문제는 협상시 꼴롬비아가 미국에 빠

나마운하지대를 내놓는 대신 엄청난 요구조건을 제기한것이였다. 당시 빠나마운하지대는 꼴롬비아에 속해있었던것이다.

루즈벨트는 이 문제를 빠나마의 반란세력을 부추겨 꼴롬비아로부터 빠나마가 독립을 선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루즈벨트는 빠나마의 독립봉기를 지원한다는 명목밑에 미군함선들을 꼴롬비아해안에 파견하였다.

미제의 로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하에 1903년에 빠나마지역에는 빠나마라는 새로운 국가가 생겨나게 되였다.

미제는 지체없이 허수아비정권으로 새로 출현한 빠나마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빠나마운하가 건설되게 될 지역에 대한 장기통제권을 획득하게 되였으며 대신 빠나마는 미국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독립권을 담보받을수 있었다.

꼴롬비아인민들은 자기들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란폭한 침해를 쉽사리 잊으려 하지 않았으며 또 빠나마의 민족주의세력 역시 외래렬강이 자기 나라를 수립하도록 조작한데 대하여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

세번째 문제로 제기된것은 엄청난 운하건설비

용이였다.

루즈벨트는 국회에 압력을 가하여 국회가 필요한 자금지출안을 승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지역 인민들을 공사장으로 끌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04년에 착공한 빠나마운하건설은 수많은 빠나마인들의 고역에 의하여 10년만에 완공되게 되였다.

운하의 총 길이는 81.6km(그중 65.2km는 륙지에, 16.4km는 만에 있다), 너비는 92～300m, 깊이는 평균 12.5m이며 운하의 량쪽에는 갑문이 2개씩 설치되여있었다.

운하로는 40만t까지의 배들이 1년에 1만 5 000척, 하루에 최고 48척 통과할수 있었다.

미제는 운하가 건설되자 이 지대를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수많은 침략군을 주둔시켰으며 운하지대를 당시 저들이 보유하고있던 최대구경의 16in대포들로 요새화하였다.

빠나마운하는 미제에게 막대한 리윤을 안겨주었으며 특히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해군의 침략행위를 뒤받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운하를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빠나마인민의 사소한 운동기운도 철저히 탄압하였다.

1999년 11월 30일 빠나마인민들의 견결한 투쟁

에 의하여 드디여 이 나라에서 쫓겨날 때까지 수십여년간 미제는 빠나마에서 련속 괴뢰들을 갈아대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의 명맥을 완전히 장악하여왔다.

아직도 변함이 없는 미제의 침략과 략탈로 하여 세계의 여기저기에는 수많은 《빠나마》들이 존재하고있다.

미제의 속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제의 덕으로 그 무슨 독립을 선사받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국에게 먹히운 하와이의 피어린 력사에서와 지난 근 한세기동안 미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한 빠나마인민들의 지난날을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메인》호폭발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1898년 2월 15일 새벽 요란한 폭음이 꾸바의 아바나항을 뒤흔들었다.

폭음과 함께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올라 아바나항의 상공은 진홍색빛으로 물들고 방금전까지도 위용을 뽐내며 서있던 미국순양함 《메인》호는 두동강나고말았다.

순양함밑창에서 일어난 강한 폭발로 하여 배는

침몰되고 배에 타고있던 해병 354명중 266명이 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이 철갑괴물이 갑자기 원인모르게 폭파된것인가.

당시 꾸바는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다.

한때 아메리카대륙을 비롯한 세계의 곳곳에 광대한 식민지를 가지고있던 에스빠냐는 19세기말에 들어와 많은 식민지들을 잃었으며 그 쇠잔한 기력으로는 도무지 미국과의 경쟁을 벌릴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독점자본주의단계에로 이행한 미국은 새로운 령토확장과 세력팽창, 상품판매시장의 확대를 위한 세계식민지재분할싸움에 적극 뛰여들었다.

미국정객들과 군부우두머리들, 독점자본가들속에서는 세계에서의 세력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는 미국인들의 특수한 역할, 신이 계시해준 명백한 운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궤변도 꺼리낌없이 쏟아져나왔다.

미국회연단에서 상원의원 비버릿지는 《신은 미국인민에게 자선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재생을 령도할 사명을 지닌 민족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사명이다.》라고

떠벌였다.

이처럼 뻔뻔스러운 망발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의 군사적잠재력을 키우며 세계의 재분할에 군사력을 광범히 그리고 적극 리용할데 대한 넉두리들도 동반하였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된것은 미제가 대규모적인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는 강력한 해군함대를 가지는것과 함께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들을 가지는것이 불가피하다는것이였다.

해군제독 마한과 그 지지자들은 다른 렬강들을 릉가하는 함대를 가진 나라만이 세계무대에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할수 있다는 교리를 내놓고 무제한한 판매시장과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투쟁은 가장 가까운 지역인 까리브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침략계획을 제기하였다.

당시 미국의 까리브해지역에로의 진출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된것은 꾸바와 뿌에르또 리꼬 및 기타 지역을 지배하고있던 에스빠냐였다.

에스빠냐는 미제가 해외팽창에서 가장 탐내고있던 괌도와 필리핀 등을 소유하고있었지만 미국팽창주의자들이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싸워이길수 있는 대상이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싸움의

첫 대상을 에스빠냐로 삼고 그와의 전쟁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895년 하나의 사변이 라틴아메리카땅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빠냐를 반대하는 꾸바독립전쟁이였다.

꾸바의 민족적영웅인 호쎄 마르띠의 지도하에 꾸바의 애국자들은 에스빠냐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독립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쾌재를 부르고있는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름아닌 미국대통령 맥킨리와 시어드 루즈벨트를 비롯한 미국의 지배층이였다.

그들은 꾸바의 독립을 원해서가 아니라 국제적분쟁에 개입한다는 침략의 구실을 찾았던것이다.

자나깨나 꾸바섬을 타고앉을 기회만 노리고있던 미제는 꾸바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즉시 에스빠냐군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꾸바에서 미국의 리권을 보호하고 꾸바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떠들어댔다. 한편 꾸바인민들의 투쟁에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는 기만적인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한편 1898년초 미국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전함 《메인》호를 아바나항에 정박시킬것을 미해군에 명령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함 《메인》호는

아바나항에 정박하면서 현지주둔 에스빠냐군을 감시하에 두게 되였다.

그런데 갑자기 원인모르게 순양함《메인》호가 폭파된것이였다.

《메인》호가 폭파된 다음날 미국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그것을 무작정 에스빠냐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즉시 에스빠냐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내였다.

에스빠냐정부는 그것이 미국의 자작극이라는것을 간파하였으나 미국과 전쟁을 할수 없는 형편이므로 과중한 물질적보상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온갖 시도를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진짜속심은 보상따위가 아니였다.

맥킨리대통령은 국방추가자금으로 500만US$를 지출할것을 국회에 제기하였으며 국회는 이 제기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메인》호침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미해군조사단은 폭발이 그 무슨 기뢰에 의한것이라고 조작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메인》호의 폭발원인은 당시에도 많은 력사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문을 자아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미국의 조작이라는것이 너무나도 낱낱이 드러났다.

실례로 1976년에 미해군제독 하이먼 쥐. 릭커버는 자기의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침몰은 철저히 내부폭발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과의 전쟁을 벌릴 힘이 없었던 에스빠냐는 영문도 모르는 《메인》호폭파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강요된 전쟁을 피하려고 극력 노력하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요구조건에 따라 에스빠냐군이 꾸바에서 추진하고있던 집단부락정책을 포기하며 꾸바독립세력이 원한다면 정전도 받아들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활한 미국의 진짜속심은 꾸바에서 에스빠냐군이 감행하고있던 만행들을 저지시키는것도 아니였으며 꾸바의 독립을 실현시켜주는것은 더더구나 아니였다.

사실상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협할수 있는 꾸바의 독립세력에게 완전독립을 주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로쇠하여 쇠퇴몰락하는 에스빠냐로부터 꾸바를 비롯한 식민지들을 빼앗아내는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노리고있던 진짜 속심이였던것이다.

급해맞은 에스빠냐는 미국과의 전쟁을 막아보려고 자기 군대가 꾸바에서 일방적인 정전상태에 들어갈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만단의 준비가 다 갖추어진 미제가 이

좋은 기회를 순순히 포기할리는 만무한것이였다.

4월 11일 미국대통령 맥킨리는 국회에서 전쟁메쎄지를 발표하였으며 국회는 4월 19일 꾸바에서 무력을 사용할데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줌으로써 전쟁이 선포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놀랍게도 전쟁에 대한 첫 소식이 꾸바에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필리핀에서부터 날아왔다.

1898년 5월 1일 해군준장 죠지 듀이가 지휘하는 군함 《올림피아》호를 기함으로 하는 미해군분함대가 마닐라만에 쳐들어가 에스빠냐함대를 격파한것이였다.

결국 미국은 《메인》호폭발을 구실로 도발한 에스빠냐와의 전쟁에서 꾸바만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시아의 필리핀까지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하였던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한 작가는 미국이 도발한 에스빠냐와의 전쟁을 《장마당이 끝난 뒤 허술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늙은 집시녀인의 짐을 털어내는것》과도 같이 파렴치하다고 야유하였다. 이미 쇠약해진 에스빠냐의 저항이란 보잘것없었다.

미해군함선들은 꾸바에 에스빠냐의 증원력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꾸바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였으며 미륙군은 6월 22일 지상전을 개시하였다.

싼띠아고에 주둔하고있던 에스빠냐수비군이 투항한데 이어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뿌에르또리꼬가 또 미군에게 점령당하였다.

전전선에서 패배를 당한 에스빠냐는 강화를 제기하였으며 교전쌍방은 개전이 시작되여 석달도 채 안되는 8월 12일부터 전투행동을 중지하였다.

그해 12월에 체결된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에스빠냐로부터 뿌에르또 리꼬, 괌도 및 필리핀을 강탈하였다.

꾸바는 형식상 독립국으로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1899년에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미군을 해방자로 잘못 알고 미군의 군사행동들을 도와나섰던 필리핀의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 주장을 철면피하게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으로 대답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미제는 꾸바와 필리핀에서 에스빠냐군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본중하를 담당수행한 민족해방력량으로부터 승리의 열매를 무자비하게 가로챘던것이다.

1898년 12월 빠리에서 조인된 미국－에스빠냐강화조약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중적분노는 꾸바와 필리핀, 뿌에르또 리꼬 등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폭발하였다.

하지만 협정조인후 미국무장관이였던 윌리엄 데이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 큰 지구의를 손으로 돌리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것이 무엇인가 좀 보자.》라고 의기양양하여 말하였다.

미국－에스빠냐전쟁은 힘이 강한 제국주의국가가 힘이 약한 다른 한 제국주의국가를 물어메친 력사상 최초의 제국주의전쟁이였다.

에스빠냐는 식민지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당하였고 반면에 아메리카제국은 아시아에로 자기의 판도를 뻗치게 되였으며 1898년에는 웨이크섬과 하와이를, 1899년에는 사모아제도를 먹어치움으로써 중국에로 건너갈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련해놓을수 있게 되였다.

신문《워싱톤 포스트》는《전쟁기간 새로운 취미 즉 우리의 힘을 시위하려는 강렬한 욕망이 생겨났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맥킨리는 이제와서 미국의 《팽창과 확장은 더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호언하였다.

《메인》호 폭발사건은 그후에 벌어진 강도적인 제국주의전쟁을 통하여 미제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날강도적인 도발이였다는것이 남김없이 폭로되였다.

날강도의 교리-큰 몽둥이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큰 몽둥이는 옆에 차는것》, 바로 이것은 시어더 루즈벨트가 까리브해지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 대하여 취한 립장이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실지 말을 부드럽게 한것이 아니라 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면서 종종 《미국은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국제질서를 표방한 이 교리는 《먼로우주의》의 개악판이였다.

1904년 루즈벨트는 《먼로우주의》에 자기의 사상을 덧붙인 《루즈벨트교리》라는것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을 세상사람들은 《큰몽둥이정책》이라고도 한다.

《먼로우주의》가 서반구지역에 대한 유럽렬강들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서반구지역은 미국의 령지라고 선언한것이라면 《루즈벨트교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국의 영향력행사에 도전해나선다면 미국은 가차없이 큰몽둥이를 휘둘러댈것이라는 공공연한 공갈이고 위협이였다.

《먼로우주의》는 발표당시 미국의 힘이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것으로

하여 그 실행력이 결여된것이였다면 《루즈벨트교리》는 날카로운 이발을 가진 야수의 넉두리였다.

《루즈벨트교리》는 한마디로 까리브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큰몽둥이를 서슴없이 휘둘러대야 한다는것이였다.

루즈벨트와 그의 후임자들은 흰소리만 친것이 결코 아니였다.

1900년부터 1907년사이의 기간에 미국의 무력은 꾸바와 빠나마, 니까라과, 도미니까, 메히꼬, 아이띠에 투입되여 그 나라들의 공민전쟁들에 대한 간섭행위를 일삼았으며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당시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에 비하여 식민지는 적게 보유하고있었으나 아메리카 전역에서 사실상 광대한 아메리카제국령역을 이미 완성시켜나가고있었다.

이 시기 미제가 형성한 제국령역은 령토병합방식보다는 정치적 및 경제적통제권을 장악하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볼수 있다.

미제는 곧잘 국제질서에 대하여 떠들어대군하였는데 미국에 있어서 국제질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번영과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을 지어주는것이여야 하였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정치제도와 함께 사회제도 역시 미국식으로 개조하고 미국식가치관을 전파시켰다.

1913년에 대통령직을 차지한 우드러우 윌슨은 루즈벨트보다 한걸음 더 나가 《모든 민족국가들은 미국의 후견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 법과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에 익숙되게 될것이다.》라고 떠벌이였다.

남북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기간에 미제는 세계 주요제국주의렬강들의 대렬에 확고히 들어설수 있었다.

특히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의 승리는 오래동안 제국주의렬강의 지위를 꿈꾸어오던 미국에 있어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미국의 상품들과 딸라는 미군병사들에 의하여 피바다로 된 필리핀의 쟝글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도시들을 거쳐 전세계에로 확산되여나가고 있었다.

수천만 피압박인민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경제의 근대화와 군사력의 증대는 미국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더욱 뻔뻔스럽고도 공공연하게 큰몽둥이를 휘둘러대게 하였다.

력사의 고발

피묻은 성조기

미국기발을 성조기라고 한다.

성조기는 1776년 7월초 북아메리카군총사령관 죠지 워싱톤이 정규군을 창설하고 1777년 설날에 기발게양식을 하면서 게양한 기발이다.

1818년 4월 4일 미국회는 령토가 팽창되는데 따라 별의 수도 많아진다는것을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미제의 침략력사가 어려있는 동시에 정든 고향땅을 빼앗긴 인디안들의 피와 원한이 스며있다.

50개의 별은 미국의 현재 50개 주를, 13개의 줄무늬는 독립전쟁에 의해 형성된 최초의 13개 주를 의미한다.

미국국기는 지금까지 그 도안이 여러번 변하였는데 첫기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첫 국기를 만든것은 필라델피아의 녀재봉사 베터시 로쓰라고 하는데 그는 기발도안에 흰줄과 붉은 줄이 엇바뀌게 13개의 줄무늬를 주어 기발바탕으로 하고 왼쪽 웃모서리에 람색의 4각형을 그리고 그안에 13개의 별을 고리모양으로 배렬하였다. 이로써 베터시 로쓰는 미국력사에서 유명한 녀인으로 되였다고 한다.

다른 한가지 설에 의하면 미국국기의 시초가 죠지 워싱톤이 륙군에게 수여한 《대련맹》기에서 유래되였다는것이다.

이 기발의 도안가는 알려져있지 않다.

1774년 6월 14일 대륙의회에서는 기발도안에서 줄무늬는 그대로 두고 왼쪽 웃단에 있던 영국기발 형태를 없애기로 하였다.

1818년 미국국회에서는 새로운 주가 늘어날 때마다 국기에 오각별을 한개씩 더 첨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의 미국국기는 바로 이렇게 별을 늘이면서 완성되였다.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성조기를 두고 《흰줄은 검은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개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실상 침략과 략탈의 상징으로서 피로 얼룩진 성조기는 별을 뿌린 기발이 아니라 무고한 인민들의 뼈와 두개골을 뿌린 기발이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침략과 략탈의 원흉 미제국주의를 저주규탄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미국성조기를 불태우며 반미성전을 과감히 벌리고 있는것이다.

동네싸움에서 한몫 보다

침략과 략탈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창피도 모르는것이 미국이다.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국가들 내부모순의 산물이였으며 엄연한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은 여기에 개입해나설 아무러한 명분과 리유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메인》호 폭발과 같은 그럴듯 한 리유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판에 뛰여들어 한몫 볼것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도이췰란드, 영국사이에는 잠수함전을 둘러싼 마찰이 일어나게 되였다.

유럽각국을 휩쓴 제1차 세계대전마당에서 지상전에서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게 된 도이췰란드는 영국, 프랑스, 짜리로씨야를 비롯한 협상국측에 경제적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잠수함전에 적극 매달리였다.

수많은 협상국측 함선들과 선박들이 도이췰란드의 잠수함들에 의하여 침몰되였다.

도이췰란드는 특히 미국에서 출항한 영국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배들에는 례외없이 미국이 영국에 팔아먹는 군

수물자들이 대량 적재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도이췰란드는 미국이 협상국의 병기창, 자금조달자로 되였다고 간주하게 되였으며 미영간의 군수물자교역을 차단하는것을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영국선박들에 대하여서는 가차없는 잠수함공격을 가하였다.

1915년 5월에 영국의 호화려객선 《루시타니어》호는 1 300명이 넘는 려객들을 태우고 미국의 뉴욕항을 출항하였다.

이 배가 떠나기 전에 미국주재 도이췰란드대사관은 신문들을 통하여 영국선박들을 리용하는것을 삼가할것을 려객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윌슨은 그에 대하여 들은척도 하지 않고 려객선출항을 묵인하였다.

5월 7일 《루시타니어》호는 아일랜드근해에서 도이췰란드의 잠수함공격을 받고 침몰되여 100여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1 198명의 려객들이 사망하였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윌슨은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무고한 사람들이 탄 평화적인 선박을 침몰시킨것은 야만행위라고 규탄해나섰다.

그러나 《루시타니어》호에는 려객들만 타고있은것이 결코 아니였다.

이 배에는 《레밍톤》보충용 탄약 420만발을 포함한 전시물자들과 전시식료품들이 실려있었던것이다.

그때 미국내에서는 무고한 사망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국국민들이 교전국들의 선박을 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으나 한창 벌어지고있는 세계적인 식민지재분할전에 뛰여들수 있는 구실과 언질로 될 사변적인 무고한 희생을 필요로 하고있던 윌슨은 그러한 목소리들에 코방귀를 뀌였다.

1917년 4월 2일 윌슨은 국회에서 전쟁서한을 발표하였으며 미국회는 도이췰란드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미제는 만일 교전국대렬에 뛰여들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후에 있게 될 식민지재분할흥정판에서 좌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윌슨은 만일 미국이 중립국의 대표자로만 남아있는다면 전후에 가서 미국은 협상이 벌어지는 방의 문짬사이에 대고 호소나 하게 될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다.

이렇게 되여 미제는 눈치를 보다가 약한 놈들을 물어메치고 그들의 먹이감을 빼앗기 위한 세계적범위의 제국주의전쟁에 뛰여들게 되였던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더욱 확대하고 재분할하는 계기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0년대말에 이르러 지구륙지면적의 77%이상이 제국주의식민지로 전락되였고 세계인구의 69%이상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미제는 제1차 세계대전에 뛰여든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주요렬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수 있게 되였다.

1918년 12월 마침내 프랑스 빠리교외에 위치한 베르사이유궁전에서는 강화협상이 진행되게 되였다.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워싱톤을 출발하는 미국대통령 우드러우 윌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발표한 《14개조강령》을 실현함으로써 전후 세계에서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수립하리라 단단히 마음다지고있었다.

윌슨의 《14개조강령》으로 말하면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고 미제의 침략성을 가리우며 쏘련을 배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인 영국, 프랑스, 일본을 약화시킴으로써 전후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려는 미제의 야망이 반영된 문건이였다.

베르사이유궁전에서 열린 강화협상은 처음부터 치렬하였다.

미제는 도이췰란드와 밀접한 경제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으며 특히는 도이췰란드를 부활시켜 전후 쏘베트로씨야뿐아니라 유럽의 제국주의렬강들을 제압하는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이췰란드에 소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도이췰란드로부터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힘을 키우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령토의 대부분이 세계대전 전기간 전장으로 되여있던 프랑스와 그리고 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국가들은 도이췰란드에 대한 전쟁배상금부과액을 대폭 늘일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종당에 가서 4거두(영국의 로이드 죠지, 프랑스의 클레망쏘, 이딸리아의 오를란도, 미국의 윌슨)는 도이췰란드에 부과할 전쟁배상금규모를 결정할 위원회의 창설에 동의하였는데 그에 따라 후날에 창설된 위원회는 배상금규모를 330억US$로 락착지었다.

도이췰란드와 뛰르끼예가 가지고있던 해외식민지들을 빼앗아가지는데서도 렬강들은 양보를 몰랐다.

중근동지역과 태평양상의 섬들, 중국의 도이췰

란드리권지대들을 비롯한 기름진 고기덩이들을 놓고 제국주의렬강들은 서로 으르렁댔다.

협상에서 순조롭게 합의된 조항은 단 한가지, 쏘베트로씨야를 철저히 봉쇄할데 대한 의제였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궁전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일본 등 련합국측 전승국들(26개국)과 전패국인 도이췰란드사이에 강화협정이 정식 체결되였으며 조약에 따라 도이췰란드의 모든 식민지들은 전승국렬강들에 의하여 분할되였다. 도이췰란드는 륙군은 10만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였으며 함대를 축소하고 군용비행기를 못가지게 되였다.

사실상 윌슨은 베르사이유궁전에서 벌어진 제국주의렬강들의 먹이쟁탈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도이췰란드에 경한 처벌을 줌으로써 도이췰란드를 재생시켜 쏘베트로씨야뿐아니라 유럽제국주의렬강들까지도 제압하려던 야망실현에 장애물이 생겨났으며 식민지쟁탈전에서도 자기 몫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령토팽창열에 들떠있는 미국의 우익세력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국내의 진보력량으로부터 규탄을 받아오던 윌슨은 우익보수세력의 공격의

대상으로까지 되여버렸다.

게다가 국제련맹은 미국의 성원국가입이 없이도 자기의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전후 세계를 좌우지하는데서 국제련맹을 중요한 도구로 리용하려던 윌슨의 야망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미제는 제국주의주요렬강의 지위를 공고히 할수 있게 되였으며 특히는 도이췰란드와 영국의 세력을 밀어내고 라틴아메리카지역을 자기의 손아귀에 더욱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다.

미제는 또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이 전쟁으로 허약해지고있을 때 무기와 군수품판매로 자본주의경제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할수 있었다.

전쟁기간에 로동력의 10%를 잃은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는 물론 영국을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도 거의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오직 눈치를 보다가 후에야 뛰여든 미제국주의만은 세계대전을 통하여 더욱더 비대해지게 되였다.

기만적인 뉴딜과 선린

신심에 넘쳐 대통령선거전에 나선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프랭클랜 덜래노 루즈벨트는 일반선거에서 1 580만표의 지지표를 받은 후버에 비하여 2 280만표라는 우세로 승리하였으며 지어 선거인단선거에서는 472표 대 5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후버를 압도하여 1933년에 대통령감투를 쓰게 되였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것은 그자신이 또는 민주당이 대공황의 악몽을 타개할 그 어떤 새로운 방략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선거자들이 허버트 후버와 그의 공화당에 환멸을 느낀데 기본원인이 있었다.

사실상 대통령선거깜빠니야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강령은 거의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민주당이 금주법철회와 련방적인 구제조치를 주장한것만이 다를뿐이였다.

의기양양하여 대통령직에 새로 취임한 루즈벨트는 《무엇보다먼저 나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 그것은 아무러한 명분도, 리유도, 공정성도 없는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루즈벨트로 말하면 하바드대학과 콜럼비아대

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노릇을 하다가 민주당의 뉴욕주의회 의원으로, 윌슨행정부의 해군차관으로 있었으며 1920년에 부대통령후보로 선거에 나섰다가 락선된 경력을 가지고있었다.

그후 그는 병으로 공직에서 물러섰다가 1928년에 뉴욕주 지사로 당선되였으며 세계경제공황이 가장 심하던 1932년 선거에서 민주당후보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1933년에 제32대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던것이다.

《미국자본주의제도의 구원자》로 불리우는 루즈벨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죽는 날까지 12년동안 4기에 걸쳐 대통령자리에 앉아있었다.

루즈벨트가 미국력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4선대통령,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무려 네번에 걸친 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될수 있은것은 그가 내놓은 기만적인 뉴딜(새 정책)과 선린정책에 있다고 할수 있다.

루즈벨트가 민주당대통령후보로 추천되였을 때 미국의 경제형편은 파국적국면에 처하여있었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을 때 미국의 은행금고는 텅 비여있었다.

1929년-1933년의 경제대공황으로 근 1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들의 25%가 살길을 찾아 헤매고있었으며 전국의 4 600여개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최악의 공황으로 허덕이고있던 지배계급은 저들의 지배능력에 대한 자신심을 잃고 자본주의제도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정책도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지어 그들은 미국에서도 도이췰란드나 이딸리아에서 파쑈독재체제를 확립하고있던 히틀러와 무쏠리니와 같은 극악한 파쑈분자가 출현하기를 고대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파쑈화의 길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그 속심을 알수 없는 뉴딜과 선린정책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것이다.

1933년 3월 4일 루즈벨트는 대통령취임사에서 《곤경에 빠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행동,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어떠한 정책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능의 이름으로 국민앞에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것이며 만약 의회가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가위기가 계속된다면 본인은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루즈벨트의 취임사인 동시에 그가 내놓은 뉴딜과 선린정책에 기대와 의문을 가지고 하루에 무려 4 000여통의 편지를 보내온 미국인

들에 대한 그의 대답이였다.

루즈벨트가 내놓은 뉴딜은 개별적인 자본가들의 생산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와 조절을 통하여 공황을 극복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집권기간 루즈벨트는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로동운동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로동력공정고용법》, 《사회보장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뉴딜이라고 한다.

바로 이때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을 무장해제시키는 이른바 사회복지라는 허울좋은 시책이 실시되였다.

이것은 눈앞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우매한 독점자본가들의 일시적인 분노를 낳게 하였으나 각성이 무딘 일반사람들의 환심을 살수 있었다.

초기에 독점자본가들과 대농장주들은 루즈벨트가 사회주의색채가 짙은 위험한자라고 비난해나섰고 공화당패거리들도 루즈벨트의 진속을 알지 못하고 비난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로동운동에 나섰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로동귀족이 생겨났으며 얼마간의 생활안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된것처럼 여기면서 루즈벨트에 대한 환상에 빠져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혁명을 포기해나섰다.

잠시후 독점자본가들과 대농장주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파업이요, 폭동이요 하면서 무섭게 들고일어나던 로동운동이 썰물처럼 점차 줄어들고 로동자들이 공손해졌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자본가들의 돈주머니가 불어나기 시작한것이였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희한한 일이였다.

그러기에 반동지배층과 자본가, 농장주들은 루즈벨트의 정책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그에게 언제나 찬성표를 던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력대적으로 내려오던 3선거부전통을 타파하고 세번째로 재선된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소아마비후과로 버팀대와 지팽이 그리고 삼륜차에 실린 몸을 가지고도 4번째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였던것이다.

루즈벨트는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다는것을 알았으며 그 반항은 미국의 자본주의제도를 송두리채 뒤엎을수 있다는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있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일시적이지만 뉴딜에 의거하여 파산에 직면한 대독점자본가들에게 은행대부금을 대주는 한편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원조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이른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빈궁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공포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장하는 기만적인 정책을 련이어 내놓고 집행하였다.

이것은 국내자본주의제도의 위기를 타파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적팽창정책을 가리우는 교활한 침략정책을 밀고나감으로써 자본주의제도를 잠시나마 위기에서 구원하는 기만극, 미봉책으로 되였다.

허울좋은 구제와 부흥의 간판밑에 실시된 뉴딜은 경제공황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은 미국독점자본가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투자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로동운동을 비롯한 인민들의 반항을 억제, 무마함으로써 미국자본주의의 위기를 일시적이나마 수습하게 하였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발전의 중요단계를 이루어놓았다.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조정은 일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듯 하였으나 결코 자본주의경제의 고유한 모순을 해결할수 없었다.

경제공황은 미국경제의 본성적취약성으로부터 기인되는 항시적인 위험요소이다.

다소 회복기를 맞이하는듯 하던 미국경제는

1937년부터 또다시 새로운 경제공황에 휘말려들게 되였으며 루즈벨트의 뉴딜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루즈벨트가 내놓은 선린정책은 미제가 20세기초부터 실시해오다가 실패한 대외적인 침략과 간섭정책인 큰 몽둥이정책을 포기하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팽창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회유기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이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체 간섭을 그만둘것을 선언하고 선린정책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기본정책으로 선포하였다.

20세기초부터 미제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하여 실시해온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정책인 큰 몽둥이정책은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하여 1920년대말에 이르러 실패하게 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식민지팽창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던 종전의 침략수법을 변경시켜 친선이라는 간판밑에 회유기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활한 수법에 매여달리게 되였다.

루즈벨트는 이른바 선린정책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기본정책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체

간섭을 앞으로 그만둘것을 선언하였으며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있는 저들의 침략군을 끌어내가고 몇개의 략탈적협정(1934년 아이띠와의 협정, 1936년 빠나마와의 협정)을 재검토하는 놀음을 벌렸다.

미제가 들고나온 선린정책은 곤경에 처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교활한 전술로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그들의 반미투쟁을 약화시키며 이 지역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더욱 강화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었다.

그것은 그후 미제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더욱더 큰 예속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팽창과 침투, 간섭을 보다 강화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선린정책은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성과 함께 비길데 없는 교활성, 악랄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실상 선린정책의 간판아래에서 미제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은 더욱 강화되였다.

루즈벨트의 기만적인 뉴딜과 선린은 미제가 떠드는 유화정책이나 강경정책이나 그것은 모두 미제국주의를 막다른 위기에서 구원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악랄하고도 교활한 전술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

파쑈를 돌격대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 주요제국주의렬강의 지위를 공고히 한 미제에게 있어서 쏘련은 눈에 든 가시였고 한하늘아래서 공존할수 없는 불구대천의 적으로 되여있었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가 안아온 위대한 전취물인 쏘련이 당시 인류해방위업을 위한 유일한 기치, 국제로동계급과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등대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로부터 미제는 인류의 리상사회인 첫 사회주의국가 쏘련을 말살하는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미제는 쏘련을 비롯한 세계진보적력량의 혁명적진출을 막기 위한 돌격대를 키워야 한다는 타산밑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도이췰란드를 그 적임자로 찍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련합국의 제국주의렬강들이 도이췰란드의 군사력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을 때 미제는 음으로양으로 도이췰란드의 복수주의자들에게 막대한 량의 원조를 제공해주었다.

미제는 전후 페허속에서 허덕이고있던 도이췰

란드에 수백만US＄의 자금을 대부해주었으며 1924년에는 도즈안을 발기하여 도이췰란드가 물어야 할 전쟁배상금의 년간지불액을 대폭 삭감하고 배상금지불기한도 연기해주었다.

도즈안이란 제1차 세계대전후 도이췰란드군국주의를 되살릴 목적으로 미제가 꾸며낸 도이췰란드의 전쟁배상금지불계획이다.

당시 미국 부대통령이며 시카고의 대은행가인 도즈의 지도밑에 작성되였다고 하여 도즈안으로 불리운 이 계획은 1924년에 전승국들의 런던회의에서 채택되여 1929년까지 실시되였다.

도즈안이 추구한 중요한 목적은 첫째로, 쏘련을 반대하고 유럽에서 장성하는 혁명운동을 교살하기 위하여 도이췰란드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다시 강화하는것이였으며 둘째로, 미국독점자본에 의한 도이췰란드경제의 예속화를 다그치는것이였다.

도즈안에서 미제는 도이췰란드의 군수공업을 포함한 중공업발전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함으로써 도이췰란드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리윤과 국민소득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한편 미제는 도이췰란드공업의 부활을 위하여 방대한 국제차관을 줄데 대하여서도 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제는 도즈안실시 6년동안

에 막대한 장기차관과 단기차관을 도이췰란드에 주기로 하였다.

또한 미제는 도즈안에서 배상총액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도이췰란드로 하여금 임의의 시각에 배상의무를 포기할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여주었다.

결국 전패국 도이췰란드의 배상지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되였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막대한 량의 차관을 받음으로써 도이췰란드는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칠수 있게 되였으며 배상금지불은 종국적으로 중지되였다.

도이췰란드가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복하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들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의 막대한 원조였다.

1933년에 도이췰란드에서는 극악한 파쑈전쟁미치광이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였다.

히틀러는 베르사이유강화조약의 준수를 거부하였으며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나치스도이췰란드는 파쑈국가들인 이딸리아와 일본과 방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동맹을 수립하였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히틀러도이췰란드군의 발굽에 짓밟혔으며 아시아에서는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었다.

무쏠리니의 파쑈이딸리아도 뒤질세라 아프리카와 남유럽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파쑈국가들을 반쏘돌격대로 내몰기위하여 음으로양으로 획책하면서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파쑈국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극력 비호조종하였다.

1938년에 있은 체스꼬슬로벤스꼬위기시 루즈벨트는 히틀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은《유럽에 대한 아무러한 정치적개입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이 전쟁미치광이를 더욱 부추기였다.

실지로 월가는 나치스도이췰란드의 가장 큰 자금원천지였다.

1924년에 이르러 도이췰란드에서 통화팽창의 위기가 차츰 가셔지기 시작하자 월가의 은행가들은 어떻게 하면 도이췰란드의 전쟁준비를 도울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24년부터 1931년사이의 기간에 월가는 두차례의 계획에 따라 도이췰란드에 도합 1 380억DM(마르크)의 대부를 제공하였는데 이 기간에 도이췰란드는 도합 860억DM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였다.

결국 이것은 도이췰란드가 그동안에 미국으로부터 520억DM의 금융지원을 받은것으로 되는데 이 자금은 군수공업의 급속한 발전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이였다.

더우기 미국과 나치스도이췰란드, 파쑈이딸리아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특별한것이였다.

미국의 최대기업 100개중 26개가 1937년에 도이췰란드와의 계약에 서명하였으며 파쑈이딸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1935년 이후에도 미국의 원유, 동, 강철업체들은 도덕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자제할데 대한 루즈벨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이췰란드에 대한 전략물자수출을 더욱 늘이였다.

듀폰, 스탠다드 오일, 제네랄 모터스, 유니온 카바이드회사의 중역들은 도이췰란드최대의 화학기업체인 더우 케미컬회사와 무데기로 계약들을 체결하였다.

프랑스가 강점당하고 영국이 도이췰란드비행기들의 폭탄에 얻어맞고있을 때가 되자 루즈벨트를 비롯한 미국의 지배층은 나치스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으나 돌아앉아서는 군수물자나 팔아먹으면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쏘련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자 미제는 쏘련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점쳐보면서 누구의 편에 설것인가에 대하여 저울질하였다.

그러나 쏘도전장에서의 대세는 그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가 치른 유럽전쟁과는 전혀 달랐다.

패배를 모른다던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정예사

단들이 쏘련붉은군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허우적거리고있었던것이다.

쏘도전쟁의 대세를 가늠해보던 루즈벨트는 쏘련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의 락후한 짜리로씨야가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파쑈국가들을 내세워 쏘련을 없애치우려던 미제의 흉심은 깨지고말았다.

결국 미제는 대쏘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하여 그토록 포옹해주고 애무해주던 파쑈국가들을 반대하여나서지 않을수 없었고 그처럼 배척하던 쏘련과 련합해나서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전쟁초기 련합국의 기본력량을 이루고있던 쏘련, 미국, 영국사이의 가장 중요한 토의의제는 제2전선전개문제였다.

당시 쏘도전쟁의 기본중하를 걸머지고있던 쏘련은 도이췰란드군의 서쪽에 새로운 전선, 2전선을 전개함으로써 전쟁의 중하를 얼마간이라도 덜어보려 하였다.

처음 루즈벨트는 쓰딸린에게 1942년중으로 제2전선을 전개할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쳐칠과 함께 어떻게 하나 2전선의 전개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파쑈도이췰란드와 함께 쏘련도 극도로 약화되도록 함으

로써 저들의 세계재패야망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데 있었다.

미영련합군이 프랑스북부해안에 대한 공격대신 1942년 11월 북아프리카침공을 개시하게 되자 쏘련은 극도로 분노하였다.

1942년 9월부터 1943년 1월까지 쏘련의 붉은군대는 쓰딸린그라드전투에서 도이췰란드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쏘도전쟁 나아가서 제2차세계대전의 전반적형세를 반파쑈력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다.

1943년 12월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진행된 3거두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쳐칠은 쏘련측의 강한 압력에 못이겨 하는수없이 1944년초에 노르망디상륙작전을 전개할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은 파쑈도이췰란드로 하여금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계속 매여달리게 하는 한편 이 과정에 파쑈도이췰란드 역시 약화시켜 유럽에서의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수립할것을 꾀하면서 제2전선형성을 극력 태공하였다.

그들은 늦어도 1944년 5월 1일전으로 유럽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펼데 대한 테헤란회담결정을 의식적으로 집행하지 않고있다가 쏘도전선에서 쏘련군대의 승리적진격과 프랑스에서의 항쟁운동의 강화, 도이췰란드무력의 상대적약화가 확

실해졌을 때인 1944년 6월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의 노르망디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벌렸다.

사실상 쓰딸린그라드전투에 뒤이어 진행된 꾸르스끄전투에서의 승리로 쏘도전선에서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배는 기정사실로 되여있던 때에 진행된 노르망디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반적인 행정에 아무런 본질적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미제가 노르망디상륙작전을 벌린 진의도는 반파쑈혁명력량에 의한 유럽의 해방과정을 가로막고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며 유럽인민들속에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전후문제처리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데 있었다.

그후에도 미제는 파쑈도이췰란드와의 단독강화조약체결을 꾀하면서 미국정보계의 거두였던 알렌 덜레스를 내세워 파쑈도이췰란드군의 거물급인물이였던 월프와의 비밀협상까지 진행하였지만 그 음흉한 기도는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야말로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파쑈도 자래워 세계대전에로 부추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를 반대해나서기도 하는 교활한 제국주의침략자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력사의 고발

적색공포증

사회주의10월혁명으로 쏘베트로씨야가 창건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악몽에 빠져들었다. 첫 사회주의국가의 창건은 세계 수십억 피압박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은 공포속에서 아우성쳤다.

미국의 대독점자본가들과 착취계급의 눈에는 근로인민대중이 이제라도 당장 손에 무장을 들고 썩어빠진 저들의 통치체계를 들어낼것만 같이 안겨왔다.

적색공포증이 생겨난것이다.

1918년 여름 미국정부는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연설의 자유권을 주장한 사회주의자당의 지도자 유젠 데브스에게 10년간의 감옥생활을 언도하였다.

미국방위동맹, 치안유지대, 미국방위협회, 미국재향군인회와 같은 극우익반동단체들은 때를 만난듯이 미국사회주의자당과 세계산업로동조합동맹을 반대하는데 나섰다.

그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무렵에 이르러 세계산업로동조합동맹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감옥에 끌려들어가게 되였으며 많은 외국출신의 동맹원들은 국외로 추방당하였다.

도이췰란드인 후손이고 사회주의자이며 위스컨

신주출신의 국회하원의원이였던 빅터 버져가 겪은 가혹한 시련은 제1차 세계대전시와 전후 미국에서의 적색공포증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표상을 일정하게나마 가질수 있게 한다.

빅터 버져는 정부를 비판하였다는 리유로 간첩행위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였는데 밀워키시의 선거자들은 1918년 국회의원선거시 다시 그를 국회의원으로 선거하였다. 다음해 초 버져는 유죄판결을 받고 련방감옥에서 20년간의 징역살이를 할것을 언도받았다. 국회하원은 그때부터 그의 의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를 친도이췰란드분자 또는 친볼쉐비크분자라고 공격하였다. 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와있으면서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 버져는 특별선거에서 승리하여 자기의 국회의원의석을 또다시 차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하원은 또다시 그의 의원자격을 인정하는것을 거부하였다. 버져의 악몽과도 같은 시련은 사회적 압력에 못이겨 1921년 최고재판소가 그에 대한 판결을 재심의하여 수정할 때까지 계속되였다.

반공히스테리를 대표하는 인물은 윌슨행정부의 사법장관 에이. 미첼 파머였다. 1920년대통령선거시 민주당후보로도 나선바 있는 파머는 《혁명의 불길은 …교회당의 제단들과 교정의 종루들, 미국의 신성한 가정들의 구석구석에까지 날름거리며 사회의 기초를 불태워버리고있다.》고 하면서 미국내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철저히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1919년 파머의 수하에 있던 조사국의 특무들은 세계산업로동조합동맹 성원들에 대한 구속을 진행하였으며 파머는 249명의 이 동맹성원들을 로씨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19년 11월 워싱톤주의 쎈트럴리아에서는 미국재향군인회 성원들이 거리에서 광란적인 행진을 진행하다가 세계산업로동조합동맹의 회관에 뛰여들어 여러명에게 치명상을 입히였으며 툴싸에서는 한무리의 폭도들이 이 동맹 성원들을 붙잡아 채찍질을 가하며 란동을 부리다못해 피가 흐르는 상처자리에 타르까지 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적색공포증은 1920년 1월 사법성이 일명 《파머의 습격》이라고도 불리우는 백색테로를 감행하는것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사법성 조사국의 우두머리였으며 후에는 미련방수사국 장관자리까지 차지한 후버가 작성한 자료들을 리용하여 특무들은 33개의 도시들에서 수색령장도 없이 공회당들과 가정들에 뛰여들었다.

4 000명이상의 사람들이 검거되였는데 이들에 대한 변호는 일체 금지되였다. 보스톤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이 끔찍할 정도로 추운 디어 아이어랜드의 어느 한 류치장에 갇혀있었는데 2명은 페염으로 사망하고 1명은 땅에 뛰여내려 자살하였으며 다른 1명은 정신분렬증에 걸렸다. 비발치듯 쏟아지는 사회적비난의 목소리와 압력에 의하여 대부분의 《파머의 습격》피해자들이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1920년부터 1921년사이의 기간에 600명이상의 사람들이 국외로 추방당하였다.

수많은 인권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이 파머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사실상 체포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러한 죄도 없었다. 파머가 《평화시기 치안유지법》채택까지 들고나오자 지어는 지배층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윌슨을 비롯한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파머와 같은 하수인들을 리용하여 자기 행정부의 정책들을 의문시하고 비판을 가하는것은 곧 국가에 대한 비난으로 되며 따라서 그러한 행동들은 처벌의 대상으로 될것이라는 살벌한 분위기를 세워놓았다. 결국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적색공포증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저들의 침략적인 사상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는것을 세상에 드러내놓은것이였다.

당시 미국회상원의원이였던 라 폴리트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체험은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대중의 권리를 무섭게 침해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라고 개탄하였다.

아시아를 놓고 벌린 일제와의 개싸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일제는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쥐기 위하여 서로 눈치를 보면서 칼을 벼리고있었다.

그러면서도 미제는 일제와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국주의일본을 사회주의쏘련을 반대하는 반쏘전쟁으로 내몰려는 음흉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이미전에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에서 톡톡히 쓴맛을 본 일제는 쏘련과의 싸움은 될수록 피하려 하면서 북방으로의 공격대신 남방으로의 진출을 결심하였다.

한편 미제는 도이칠란드와 일본, 이딸리아가 3국협상을 체결한 후인 1940년 9월 항공유와 파철의 일본에로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도 미제는 휘발유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있던 일본에 대한 원유수출을 금지하는것은 곧 죽느냐사느냐 하는 일제의 사활적인 급소를 건드릴수 있다고 보면서 이 중요한 물자의 수출금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가 프랑스령동남아시아지역을

강점하면서 저들의 리권을 건드리기 시작한 1941년 7월 미제는 드디여 미국에 있는 일본자산을 동결시켰으며 원유수출을 포함한 일본과의 일체 무역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때인 1941년 11월 어느날 워싱톤비행장에는 한대의 려객기가 착륙하였다. 한 난쟁이가 비행기에서 내려와 마중나온 미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가 바로 일본천황의 특사로 워싱톤에 날아든 기따로였다.

다음날 루즈벨트와 만난 기따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통령각하, 우리 천황께서는 화약고와 같은 태평양지역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일본정부의 립장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 미국도 같은 립장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두 거물들은 화친의 표시로 악수까지 나누었다.

그후 기따로는 워싱톤에서 미국정계의 거물들과 마주 앉아 입씨름을 계속하였고 일본방송에서는 《일미쌍방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동아시아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다.》라고 떠벌이는 전쟁광신자 도죠의 목소리

가 울려나왔다.

미국과 일본사이의 회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제는 일제가 태평양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 대규모의 공세를 준비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나 일본의 공격대상과 날자만은 똑똑히 알수 없었다.

루즈벨트는 일본함대가 진주만을 기습할수 있다는 정보를 믿지 않았고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은 하와이나 필리핀을 공격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은 타이나 중국으로 진격한 후 기회를 보다가 쏘련으로 쳐들어갈것이다. …

이렇게 생각한 루즈벨트는 곧 일본천황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일제는 하와이의 진주만에 대한 기습공격을 준비하면서 미제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기만행동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1941년 12월 2일 일제는 대형려객선 《류다마루》호를 미국의 로스안젤스로 떠나보내는 연극을 꾸미고 이 배의 출항과 항행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깜빠니야를 벌렸다.

또한 일본해군부는 그때 벌써 하와이로 은밀히 접근하고있던 일본해군기동부대의 행동을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12월 5일부터 3일간 요꼬스까방면에 있는 해병양성부문의 각 학교 학생들 3 000여명을

해군현역으로 가장시켜 평화로운 도꾜견학을 조직하였다.

일본의 간특한 계책은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일본련합함대의 움직임은 미군의 경계에서 벗어나있었다.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일본함대가 인디아양에서 기동한다고만 생각하면서 일본의 히로히또천황에게 12월 6일 전보를 보내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전통적인 친선을 회복하고 죽음과 파괴가 세계에 세력을 뻗치지 않도록 할것을 요청하였다.

미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일본련합함대가 바야흐로 진주만을 들이치려 할 때조차 《리유없이 경계령을 내리거나 야간근무를 증강하지 말것》이라는 지시를 련이어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의 해군장관이 국립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륙군참모총장이 부관과 함께 별장에서 골프를 치고있을 때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할데 대한 암호전문은 워싱톤주재 일본대사관에 와있었고 일제의 전투기들과 함대들은 하와이제도에 있는 진주만을 향하여 돌입하고있었다.

해군제독 야마모또 이소로꾸의 지휘밑에 11월 26일 꾸릴렬도를 출항한 2척의 전함, 6척의 항공모함, 9척의 구축함 등으로 무어진 일본의 련합

함대는 하와이섬으로부터 260mile 떨어진 지역에 진출하였다.

이에 앞서 일제는 진주만항 입구에 이틀전부터 10척의 잠수함을 대기시키고있었다.

1941년 12월 8일 이른 새벽(하와이시간으로 12월 7일 새벽) 일제의 전투폭격기대편대는 진주만의 전함 및 륙상기지를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마침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로부터 1시간후에 일제의 전투폭격기들이 2차공격을 진행하였다. 진주만에 대한 일제의 불의공격으로 미제는 손쓸사이도 없이 앉은자리에서 비행기 230대, 전함 4척, 구축함 4척을 포함한 18척의 함선을 잃었다.

미태평양함대는 순식간에 사등뼈가 분질리우고말았다.

이날 전투에서 일제는 불과 29대의 비행기와 5척의 잠수함만을 잃었다.

일제는 진주만공격을 단행한 다음날인 12월 9일에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미국과 영국도 같은 날에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진주만에 대한 불의공격으로 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딴속심을 가지고도 《협력》을 웨쳐대던 양키와 난쟁이, 미제와 일제는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게 되였다.

원자탄과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 8시 30분 마리아나제도의 미군용비행장에서는 중폭격기 《B－29》의 몇개 편대가 날아올랐다.

《날아다니는 요새》라고 부르는 《B－29》편대들은 전투서렬을 짓고 일본으로 항로를 잡았다.

미공군대좌 파울 리버트는 자기의 비행기《히놀라게이》에 실린 우라니움폭탄에 《어린 소년》이라고 이름을 달았다.

그는 미전략항공사령관 스파츠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으며 스파츠 또한 미국대통령 해리 트루맨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몇사람만이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비행사들은 여느때나 다름없는 전투임무를 수행한다고만 믿고있었다.

몇시간의 비행끝에 일본상공에 들어선 폭격기편대들은 이미 정해진 대상별에 따라 몇개 그루빠로 나누어졌다.

리버트의 《B－29》폭격기는 히로시마로 향하였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데 대한 명령은 바로 리버트에게 떨어졌던것이다.

당시 일본에 있어서 히로시마는 군사전략상

중요한 대상으로 되여있지 않았기때문에 그 부근에는 반항공수단이 거의나 없었다.

폭탄은 히로시마상공에 투하된지 45초만에 600m상공에서 폭발하였다. 굉장히 큰 섬광이 번뜩이는것이 승무조성원들의 눈에 보였고 뒤이어 폭넓은 버섯모양의 구름이 형성되였다.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불도가니로 변하였다.

희생자는 약 26만명에 달하였다.

8월 9일 낮 12시에 두번째 핵폭탄이 나가사끼에 투하되였다. 도시가 산의 계곡에 위치하고있었음으로 화염이 멀리까지 번져지지는 못했으나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였다.

이와 같은 야만행위는 그 어떤 전쟁상의 요구나 전투성격에 의하여 감행된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자탄의 위력으로 다른 나라들과 인민을 놀래우고 굴복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대한 원자탄투하는 세계평화애호력량을 반대하는 트루맨을 비롯한 미국반동지배층의 《원자탄외교》의 첫 걸음이였다.

세계사회여론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제가 의식적으로 감행한 원자탄투하를 인류력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범죄행위로 락인하였다.

당시 영국의 어느 한곳에는 도이췰란드의 원자물리학자들이 재모집되여있었는데 원자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미국인들이 끔찍한짓을 했소. 완전히 미친짓이요!》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옷토 한이라는 도이췰란드의 과학자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위안으로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악마의 무기 원자탄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미국정계와 군부의 고위급인물들속에서도 원자탄참화를 들씌운 이 특대형범죄만행을 규탄해나섰다.

루즈벨트대통령의 보좌관이였던 윌리암 레기제독은 《원자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우리는 중세기 야만인들의 도덕수준에 이르렀다.》고 실토하였다.

미제의 야만적인 원자탄투하의 후과는 오늘까지도 없어지지 않고있다.

미국의 어용나팔수들은 저들의 이러한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묘사하면서 일본령토에 대한 련합국군의 진격작전을 전개함이 없이, 유생력량과 함대 및 비행대의 손실이 없이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킨 사실은 원자탄을 사용한 직접적이며 중요한 결과라고 떠벌였다.

미국의 보수지배층내에서는 원자탄을 투하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원자탄을 썼기때문에 일본이 인차 항복하였다, 그렇지 않고 본토상륙작전을 벌렸더라면 더 많은 희생자를 냈을것이라고 하면서 원자탄투하의 《정당성》을 제창하고있다. 물론 이것은 원자탄의 첫 피해자인 일본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실제적으로 일본도시들에 대한 원자탄투하의 결정적의의에 대한 신화는 완전히 날조된것이였다.

아이젠하워와 마샬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지배층까지도 후날 《이 폭격은 전혀 필요없는것이였으며 련합국군에게 그 어떤 안도감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원자탄투하가 아무러한 군사작전적의의도 없이 감행된 야만적인 대살륙행위였다는것을 자인하였다.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씌운것으로 하여 아메리카식인종들은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던것이다.

원자탄투하가 성공적이라는 보고를 받은 트루맨은 《이것은 력사상 가장 훌륭한 행위이다.》라고 환성을 질렀다.

그러면 미제는 왜서 전쟁종결이 눈앞에 박두한

시기에 와서 악마의 무기 원자탄을 썼겠는가.

사실상 미제가 원자탄을 투하하기 이미전에 일제는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대일선전을 선포한 쏘련 붉은군대의 제1, 2원동전선군과 자바이깔전선군이 일제의 《관동군》을 쓸어눕히며 진격을 개시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반일무장투쟁이 앙양되였으며 몽골인민군도 대일작전을 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총공격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도 조국해방을 위한 판가리결전에 진입하여 일제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놓고있었다.

미제가 원자탄을 사용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자탄보유로 자기의 군사적위력을 시위함으로써 세계진보적력량을 견제하며 특히는 쏘련에 심리적압박을 줌으로써 전후 아시아문제처리에서 저들이 주도권을 쥐자는데 있었다.

트루맨은《만일 원자탄이 폭발하게 되면 나는 그들(쏘련)을 다룰수 있는 큰 망치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미제는 일본에 원자탄공격을 가함으로써 핵무기만능의 세계제패전략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1945년 7월 핵시험이 성공하자 트루맨은

《오늘부터 세계는 미국의 발밑에 놓이게 되였다.》고 떠벌였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결코 미국 하나뿐이 아니다.

그러나 미제처럼 핵무기를 가진 첫순간부터 그것을 휘둘러대면서 인류에게 그처럼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는 아직까지도 없다.

오직 세계제패야망실현에 환장이 되고 살륙과 도살, 침략과 략탈을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미제만이 아무 거리낌없이 인류를 반대하여 원자탄을 감히 사용할수 있었던것이다.

미제는 원자탄을 가지게 된 첫 순간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공갈을 일삼기 시작한 인류의 원쑤이다.

력사의 고발

맨하탄계획

태평양전쟁이 터진 이듬해 미국서부 뉴멕시코주의 산악지대에서는 극비계획인 맨하탄계획이 실행되기 시작되였다. 불과 몇주일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뉴멕시코주의 산간지대에 로스알라모스라는 비밀도시가 생겨나고 세계의 곳곳에서 무려 6 7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한가지, 핵개발이였으며 이 거대한 계획은 미국정부내에서도 루즈벨트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인물들만이 알고있었다.

미제는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면서 원자탄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45년 7월 맨하탄계획은 시험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였으며 과학자들과 군인들로 이루어진 원자탄투하를 위한 위원회가 나오고 구체적인 투하계획이 작성되였다.

《원자탄투하에서는 실패란 있을수 없다.》는 호령을 받은 위원회는 목표지점으로 될 일본의 모든 도시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목표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것은 군사정치적의의를 가지거나 혹은 인구나 공장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투하시 실패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바로 니이가다, 고꾸라, 나가사끼, 히로시마 4개 도시들이였다.

이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는 바로 맨하탄계획실현에 의해 첫 핵참화를 당한 지역이였다.

미국의 진면모 2
선린이 아니라 침략이다

편집: 김준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4월

ㄱ-683549

전자우편 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

ISBN 978-9946-0-1444-9

9 789946 014449 >